

# 일본의 낙후지역 활성화 사례 조사

## I. 출장개요

### 1. 목 적

- 청양군 중기발전계획과 홍성군 광천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일본의 농산촌지역 활성화 성공사례 benchmarking
  -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청양군과 홍성군에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 2. 주요 조사 내용

- 시즈오카현의 도시근교농업 및 도농교류 추진실태
  - 시민농원에 대한 현장견학 및 관련 시책
  - 관련 시책 도입배경 및 운영실태
- 구마모토현의 낙후지역 활성화 정책 및 지역마케팅 시책 추진 동향
  -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마모토현의 프로그램 및 Art Polis 시책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마케팅 성공사례와 시사점

### 3. 주요 조사지역 및 조사기간

- 주요조사지역 : 시즈오카현, 구마모토현 등
- 기 간 : 2005년 10월 30일 ~11월 3일(4박 5일)

### 4. 조사자 업무

부서 및 직위	성 명	업 무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윤 갑 식	- 조사 총괄 - 관련 정책, 시책 사전 조사 및 인터뷰 조사 - 인터뷰 조사내용 작성 - 국내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검토
도시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박 철 희	- 관련 정책, 시책 사전 조사 - 아트폴리스 정책 관련 인터뷰 조사 - 시사점 검토

## II. 출장일정

일 시	세부 일정	방문기관
1일차 (10.30)	서울(김포공항) 출발 동경(하네다공항) 도착, 중식 09:25 동경역 출발 → 하마마쓰(浜松) 도착(14:59) 11:25 하마마쓰시청 방문 - 농업수산물 경영지원팀 12:56 * 시민농원에 관한 시책 청취 및 현장견학 15:30 숙박지 도착:国民宿舎「奥浜名湖」 * 시즈오카현의 green-tourism 협회회원 17:30 * 지배인으로부터 green-tourism 추진활동내용 청취  * <a href="http://www.okuhamanako.jp/">http://www.okuhamanako.jp/</a>	신칸센 이용 공용차 이용
2일차 (10.31)	조식 08:00 미카비쵸(三ヶ日町)로 이동 09:00 「みかんの里資料館:밀감마을 자료관」 시찰 및 담당자 09:45 의 설명 청취 * 전원정비사업, green-tourism꿀농장 관련시설 견학 꿀 과수원 견학 이동 11:10 중식 (농가 레스토랑) * 마을리더 동석(예정) 11:40 「カテキット共和国」라는 green-tourism 및 지역활성화 12:00 추진조직의 리더와의 토론 12:40 이동 하마마쓰(浜松) 출발(14:00) → 동경역 도착 (15:26) 17:23 신주쿠 도착, 호텔체크인 18:00 * かどや(가도야)호텔 03-3346-2561	공용차 이용          신칸센 이용
3일차 (11.01)	오전 동경(10:55) → 구마모토(12:45) 오후 <u>구마모토 현청</u> - 낙후지역 육성 Program 추진현황 ·현청에서 추진하는 낙후지역(농산어촌, 중산간, 이도 지역 등) 활성화 program 추진동향 ·중앙정부, 현, 시정촌의 역할 및 업무 연계 현황 - Art Polis Project 추진현황	구마모토 현청
4일차 (11.02)	오전 <u>구마모토현 농업테마공원</u> ·농업을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 사례 (아소밀크목장) 오후 <u>오구니정(小國町)</u> ·지역자원(나무)을 활용한 지역마케팅추진동향	오구니정
5일차 (11.03)	오전 구마모토 → 유후인 (유후인 시내 답사) 오후 유후인 → 후쿠오카 후쿠오카(20:40) → 인천(22:05)	유후인정

### Ⅲ. 출장지 사례 및 시사점

#### 1. 시즈오카현 하마마쓰 및 미카비쵸(三ヶ日町) 사례

##### 1) 사례지역의 개요

###### □ 시즈오카현 개황

- 태평양에 면한 시즈오카현은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동서 115km, 남북 118km, 7,773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바다, 산, 호수 등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시즈오카현은 사철이 모두 아름다운 일본의 대표적인 풍토를 갖추고 있음
- 동서로 긴 해안선은 약 500km에나 이르며 3,000m급의 산들로부터 흘러 내리는 하천(후지가와, 오오이가와 등)이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 기후는 북부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평지에서는 겨울철의 눈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임. 연평균 기온은 16℃, 강수량은 2,360mm임
- 시즈오카현의 주요 특산물로는 일본 전국의 약 절반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고급차를 비롯해, 각종 과일 등의 농·수산물이 있음



[그림 1] 시즈오카현 위치도

## □ 하마마쓰 현황

-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하마마쓰시는 2005년7월1일 주변의 12개 시정촌(市町村)이 합병하여 새롭게 탄생된 시임
- 하마마쓰시는 「환경과 공생하는 cluster형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정해 풍부한 자연환경의 보전, 활용 및 도시적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자치구(地域自治區)를 도입하는 등 도시내분권(都市内分權)과 함께 자치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보면 동쪽에는 강(天龍川), 서쪽에는 호수(浜名湖), 남쪽에는 여울(遠州灘), 북쪽에는 산맥(赤石山脈)있어 사방(四方)이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 어울려져 있음
- 현재(2006년9월말) 인구는 약 820,000명(시즈오카현 제1위)이며 면적은 약 1511Km<sup>2</sup>이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하나 겨울철에는 강한 북서계절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은 편임
- 하마마쓰시는 예부터 공업도시로서 2차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도 운송용기품 등의 제조업이 번창해 있음
- 최근에는 광기술(光技術) 및 전자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생산도 전국유수의 농업생산액(2004년 농업생산액 544억 엔)을 자랑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시민농원조성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미까비쵸(三ヶ日町)의 개요

- 미까비쵸는 시즈오카현 서부에 위치하는 정(町)이었지만 2005년7월1일에 하마마쓰시에 합병되었음
  -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하마마쓰시 미까비지구(三ヶ日地區)로 되어 있으며 인구 약 15,000명의 농촌지역임
  - 총면적은 75Km<sup>2</sup>이며 논 251ha, 밭 1,903ha, 임야 3,193ha로 구성됨
- 최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전원공간정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역주민들(농가중심) 스스로가 조직을 결성하여 도농교류 도모

## 2) 하마마쓰의 시민공원

- 하마마쓰에서는 농촌지역의 비활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도시민의 농촌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 하마마쓰에는 2006년 현재 29개소의 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운영 중
- 시민공원의 규모는 평균 1,000~2,000m<sup>2</sup> 규모이며, 1구획은 20~40m<sup>2</sup> 수준으로 소규모임



시민공원 모습



시민공원 모습

## 3) 미카비초의 밀감마을 자료관

- 미카비초의 「밀감마을 자료관」은 전원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 기존의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도농교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 폐교의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 특히, 본 사업은 행정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되, 행정기관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



밀감마을 자료관의 내부모습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

## 2. 구마모토현 사례

### 1) 사례지역의 개요

#### □ 구마모토현

- 규슈 지방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구마모토현은 옛부터 규슈 지방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거점으로서 번영하였음
- 세계 제일의 캄데라가 있는 웅대한 아소산,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바다의 경승지·마마쿠사섬 등 현내 각지에는 제각기 특색있는 지역문화가 숨쉬고 있으며 수많은 명소가 자리잡고 있음
- 현청 소재지인 구마모토시는 문호 나쓰메 소세키가 “숲속의 도시”라고 불렀던 녹지가 풍부한 거리이며 시의 중심부는 서일본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 상가가 자리잡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로 분비고 있음
- 풍부한 자연과 사계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조건으로 농림 수산업이 발달한 구마모토현. 수박, 토마토, 등심초 등과 수산업으로서는 참새우 등이 질·양 모든 면에서 일본 유수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음
- 또 현내의 대부분이 삼림으로 뒤덮혀 있어 양질의 목재 산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최근에는 IT 산업 등도 진출하여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실리콘 밸리로서도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음
- 더불어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의 계획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전통을 소중히 보존하는 한편, 더욱 큰 비약을 목표로 매력 넘치는 구마모토 지역창조에 노력하고 있음



[그림 3] 구마모토 위치도



## □ 오구니마찌

- 오구니마찌는 구마모토현(熊本縣) 북쪽에 위치한 인구1만 정도의 소규모 산촌지역임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구니마치는 아주 평범한 구마모토의 산골마을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지만 현재 오구니마치는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변화하여 지역 차별화에 성공하였음
- 현재 오구니마치는 일본의 산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본 삼나무를 지역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자체이자 그린투어리즘의 메카로 외국에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생태 관련 학자나 교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음

## □ 유후인

- 유후인은 큐슈 오이타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동서 8km, 남북 22km, 면적은 128km<sup>2</sup>에 이름
- 경지가 8%로 현의 전체 평균인 11%보다 낮는데 산림원야가 73.5%를 점하는 중산간지로서 1964년 일본 정부에 의해 '특정농산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특히 임야가 점하는 비율은 13.1%로서 매우 높은 편임
- 유후인정의 인구는 현재 약 1만 2천여명으로 오이타현의 약1%를 차지함. 하지만 유후인정의 인구는 1997년을 기점으로 하여 미소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조금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산촌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과소화 현상을 감안할 때 더욱 주목할 만함



[그림 3] 유후인 전경

## 2) 구마모토현의 낙후지역 육성 정책 추진 현황

### □ 일본 「과소지역」의 발생경위

- 1995년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농산어촌 지역에서 도심지로 향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구 이동이 일어나,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 집중에 의한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주민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초적 생활 조건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과소 문제가 발생

### □ 일본 「과소지역」의 정의

-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활약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타지역과 비교해 낮은 위치에 있는 지역을 과소지역이라 함

#### 과소지역 지정 요건

- (1) 인구 요건 : 이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
- 1)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30%이상
  - 2)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25%이상, 고령자 비율(65 세이상) 24%
  - 3) 1960년~1995년의 인구 감소율이 25%이상, 젊은이 비율(15 세이상 30 세미만) 15%이하
  - 4) 1970 년~1995 년의 인구 감소율이 19%이상
- \* 단, 1)2)3) 의 경우, 1970 년~1995 년의 25년간의 10%이상 인구 증가하고 있는 단체는 제외
- (2) 재정력 요건 : 1996 년도~1998 년도 3 년간 재정력 지수가 0.42이하 즉, 공영경쟁수입이 13억엔이하인 것

### □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프로그램

- 1970 년에 의원입법에 의해 10 년간 한시법으로서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 제정



- 이 법률은 연율 2%를 넘는 인구감소가 계속 되는 가운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기반이 변동하고 생활수준 및 생활기능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는 지역(과소지역)에 대해, 긴급하게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 그리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인구 과도의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의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 이후 1980년에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또, 1990년에 「과소지역자립활성화특별조치법」 제정
  - 현재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은 2000년~2009년도까지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음

#### □ 구마모토현의 시책 (활성화 프로그램) 현황

- 구마모토현 시정촌(市町村)진흥자금 대부사업(과소자금)
- 구마모토현 단독 농업농촌 정비사업(중산간형)
- 지역진흥 종합보조금 · 지역만들기 파트너십 추진보조금
  - 지역 만들기의 담당인 시정촌과 지역 만들기 단체에 의한 매력있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구마모토현이 설정하는 지역 만들기 테마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기획 제안을 모집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것에 대해서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 보조대상사업 : 매 년도의 구마모토현 중점 시책으로 선정한 지역 만들기의 테마사업
  - 보조율은 전체 사업비의 1/2 이내
  - 보조대상사업자 :
    - 정촌, 일부사무조합, 광역시정촌권협의회(종합보조금)
    - 공공단체, 제 3 섹터, 민간 비영리단체(PS보조금)

### 3)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 □ 도입배경

- 구마모토현 아트폴리스 계획은 공공 건축물을 활용하여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일종의 도시미화운동임

- 1980년대에 구마모토현에는 미나마타병이라는 환경재앙이 닥치면서 지역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쳤음. 따라서 추락한 지역이미지를 살리는 동시에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은 당시 구마모토현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되었음

## □ 추진경위

- 1983년 모리히로 호소가와(細川護熙)가 현의 지사로 당선되면서 아트폴리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
- 호소가와 지사는 ‘남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당선 1년 뒤인 1984년 ‘활력·개성·윤기가 가득한 전통문화권의 창조’를 슬로건으로 한 ‘구마모토, 내일의 시나리오’를 제안
- 이와 함께, ‘문화진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공익신탁 구마모토 21’이라는 문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그 기반구축에 힘썼고, 시스템이 갖춰지자 마을 회관이나 다리, 미술관, 버려진 건축물을 다시 재생시키는 등 총 7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그 중 67개가 완성되었음

## □ 정책목표

- 후세에 남길수 있는 문화적 자산을 창조
  - 현에서 가꾸어 온 다채로운 지역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면서 일본과 세계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발상을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의 협동을 통해 질 높고 뛰어난 건축물을 지역 속에서 창조
-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창출
  - 참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바람을 형성. 그 지역의 명소를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시도하는 한편, 상징 건조물, 또는 지역 창조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
-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
  - 커미셔너(최고책임자)가 추천하는 재능과 아이디어에 뛰어난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시야에 입각하여 기능면에서는 물론, 디자인면에서도 뛰어난 건조물을 설계. 또한 사업주와 건조물을 이용하는 입주자

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지역 고유의 환경과 역사에 배려한 독자적인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조

○ 현내 전역으로 확산

- 참가 프로젝트는 각 지역에서 「점」으로 산재하고 있으나 이것을 「선」으로 연결하여 인근 지역 참가 프로젝트와도 연대하여 최종적으로는 구마모토현내 전역에 「면」으로 확대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시스템

○ 현창사업

- 1992년에 구마모토 현내의 역사적인 건물 또는 호평을 받고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을 KAP'92 선정 기존 건축물로 선정, 1995년에 현내의 질 높은 우수한 건축물을 현창하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추진상」의 표창 (KAP 참가작품은 제외)

○ 프로젝트 사업

- 사업주가 프로젝트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하면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가 적성과 능력을 겸비한 국내외의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설계대회 등을 실시하여 그 사업에 적절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
- 설계자는 그 건조물에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건조물의 설계를 추진
- 사업주는 민간 또는 공공단체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등의 건축물은 물론 다리 등의 토목구조물, 공원과 경관 조성물 등 환경 정비와 다양한 프로젝트가 참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획, 홍보, 인재육성 사업

- 심포지엄, 의견 교환회 등의 개최, 홍보지 등의 발행, 홈페이지의 운영, 견학회 개최, 각 단체와의 기획, 홍보 협력 등의 사업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운영

○ 참가 프로젝트

- 민간이나 공공단체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의 신청에 의함. 현재까지 완성되었거나 설계중인 참가 프로젝트는 구마모토 북 경찰서 등 66개로 이중에서 3개는 민간사업이고 나머지 63개는 공공사업임

○ 설계자 선정

- 커미셔너(현재는 다카하시 데이이치 高橋靑光一)와 부커미셔너(이토 도요오 伊東豊雄)가 가장 그 사업에 적정한 설계자를 선정하여 추천

○ 어드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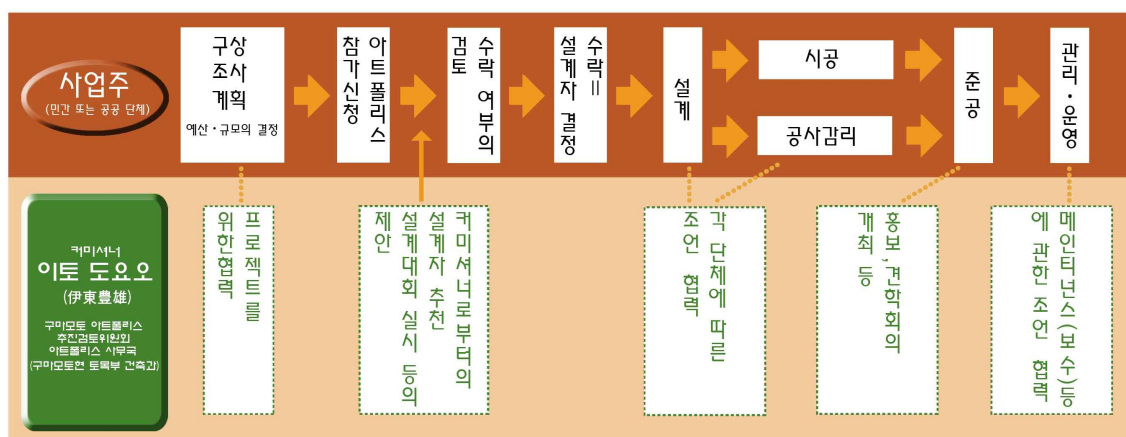
- 커미셔너와 부커미셔너는 구마모토현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지인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현지의 원로 건축가로 선정되며, 커미셔너와 협력

○ 설계자와 커미셔너의 관계

- 초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커미셔너는 설계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설계자를 도와 설계를 완성

○ 사업주의 이익

- 사업주는 자신이 단독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때 있을 수 있는 부적합한 설계자의 선정이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좋은 건조물이 완성되었을 때 가지는 자부심 혹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음. 그 이외의 다른 물질적 추가 이익은 없음



[그림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운영체계

## □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효과

- KAP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디자인이 강조된 건축물을 여러 곳에 점적으로 배치하여 이것이 점차 선·면적으로 퍼져 나가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음
- 실제로 이러한 지역색과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 설립을 통해 국내기업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음
- 또한, 문화를 모토로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이루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문화도시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낳았음



최초의 아트폴리스 작품(경찰서)



아트폴리스 인증

#### 4) 오구니마치의 지역마케팅 전략

- 오구니마치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델지역으로 알려진 이유는 지역의 대표적인 자원인 삼나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 결과임

##### □ 나무를 활용한 지역마케팅 전략

- 첫째, 나무를 이용하여 지역디자인을 다시 시작하였음.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일본에서 최초로 나무를 이용하여 실내체육관(오구니돔)을 지어 일본내에 화제를 뿌렸고, 다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버스터미널(유우스테이션)을 나무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지었음



유우스테이션 전경



유우스테이션 내부



- 둘째, 목혼관(木魂館)이라는 생태학교의 건물도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나무의 질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하여 지역상징물로 이용



목혼관 전경

- 또한 나무의 생활화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100년이 된 초등학교를 나무 그대로 수리하고 복원하여 일본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었음
- 나무와 지역상징의 접목은 레스토랑 같은 단순한 상업용 건물은 물론이고, 건물 주변의 인도, 공원의 나무의자, 심지어 톱밥을 이용한 눈 미끄럼 방지까지 그야말로 지역의 모든 공간에 적용되어 있음
- 이곳은 단순한 전시공간은 물론이고, 판매공간으로도 활용되는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벤치마킹의 모델로 여겨온 섬나라 영국에서 이름 있는 소를 수입해서 나무고장의 청정한 곳에서 사육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영국이라는 이미지와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고기 맛 등을 차별화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유제품(우유, 아이스크림, 초콜릿, 우유과자 등)을 만들어 최고의 지역상품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음

## 5) 유후인의 장소마케팅 전략

### □ 차별적지역이미지 구축을 통한 장소마케팅 추진

- 일본의 경우 온천관광산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었음
- 큐슈지역에서 온천산업은 벳부를 중심으로 일찍부터 형성되었으며, 역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벳부는 초일류 온천지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벳부는 대체로 '단체관광', '밤', '환락가' 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 일본형 관광지의 전형으로 상업주의적 경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기후나 풍토, 전통문화 등의 지역적 특성은 간과되었음
- 유후인은 벳부와 반대되는 이미지 즉, 이미지 대비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시도하였음.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방문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고 관광내용을 세분화·개성화하려는 전략을 추진
  - 벳부가 남성중심, 밤, 대형여관, 환락영업으로 특징화된다면, 유후인은 여성중심, 낮, 민박, 문화적 환경 등의 대조적 이미지를 갖는 관광지를 지향
- 유후인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유후인', '맑고 건강한 보양 온천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여기에 적합한 이미지를 형성
  - 자연의 깨끗함을 알리기 위해 유후인에서 채집한 반디를 도시에서 방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



독특한 디자인의 유후인 역



관광객을 위한 손수레

## □ 문화이벤트 개최

- 유후인에서는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음악과 영화라는 '문화적 자원'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포장하고 각종 이벤트를 축제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 1975년 7월에 마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8월에는 제1회 '유후인 음악제'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쇠고기 먹고 소리지르기' 대회 등의 독특한 테마의 축제를 개최
  - 1976년에는 '유후인 영화제'를 개최하였고 또한 1980년에는 '유후인 민예촌'과 소규모 미술관을 개관하였음
  - 음악제와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이벤트는 대도시와 유후인의 교류를 촉진시켰고 지역 이미지를 전국화하는 역할 담당

## □ 지역고유의 자연경관 창출

- 영화제, 음악제, 각종 축제 등의 이벤트는 지역이미지를 창출·강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이지만 항구적인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 있음
- 유후인에서는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을 만들기 위해 온천자원의 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
  - 외부자본에 의해 무질서한 개발을 통제하고 기존의 지역만들기 방식을 지키기 위해 1972년 '자연환경보호조례', 1983년 '모텔 유사시설 등 건축규제조례', 1984년 '주환경(住環境)보전조례', 1990년 '윤기있는 지역만들기 조례' 등을 제정

## □ 자치단체장의 선도적 노력과 주민의 적극적 참여

- 유후인의 자치단체장이었던 이와오는 유후인을 '1차산업, 온천, 자연의 산과 들'이라는 세 요소를 통합한 역동적인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자치단체에서는 유후인을 '온천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대중들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숙사 유희산장(由希山莊)'을

건설하였고 후생연금병원의 유치를 추진

- 지역주민들은 벳부의 환락형 온천지역과 차별화된 온천지역을 만들려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부합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활용하는 유후인형 여관경영을 추진
  - 또한 젊은여관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오토바이로 큐슈일대의 여행 대리점을 순회하면서 유후인을 직접 선전·홍보



유후인 시가지 전경



유후인 시가지 내부 전경